# ‘개헌 보고서’ 후폭풍…자중지란 민주당

## “文 대국민 사과를” “정략적 이용 안돼” 각당 연일 비난전

### 친문-비문 작성경위 의견 분분…진상조사위 결론 못내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보고서’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입장에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싶지만 막상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도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가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 처분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진상 파악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회의를 취소했다. 안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책임자 처분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결론이 늦어지는 데에는 계파별로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비문진영을 중심으로 “연구원이 친문의 시각을 대변하는 보고서”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기정사실로 하고 작성한 것”, “제3지대를 경계하면서 개헌론을 차단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작성자로 돼 있는 문병주 연구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익 연구원장과 진성준 부원장이 보고서 제출을 강행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친문진영 일각에서는 정반대 주장도 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친문진영으로서도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는 만큼 오히려 김 원장 등 친문 인사들은 보고서 작성에 부정적이었는데 문 연구위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진상파악이 늦어지면서 김 원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도부는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당 외부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표는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지지하는 참모들로 인해 발생한 개헌저지보고서 파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가동된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도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 계속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특위에서 “특위가 개헌을 막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접근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모 정당에서 사실상의 개헌저지 보고서를 낸 것은 유감스럽다. 다른 정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개헌저지 보고서 논란을 넘어 계파패권주의로까지 이어졌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부패 등 모든 것을 청산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던 무책임과 패권주의 또한 청산해야 한다”면서 “유신 잔존세력의 적폐뿐 아니라 문 전 민정수석·비서실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로 대변되는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집단 역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도 창당준비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전 의원에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文 ‘내년 개헌 투표’로 논란 돌파

## 개헌공약 준비…중순께 공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호헌론자’로 집중 공격을 받자 조만간 개헌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조대엽 부소장은 5일 “개헌 관련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등 문 전 대표가 그동안 강조했던 개헌 구상을 뒷받침할 세부 공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제 개편 방안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조 부소장은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며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전날 경남에서 밝힌 대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공약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순께 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가 언론에 나설지 혹은 싱크탱크가 준비 중인 포럼에서 다른 공약들과 함께 이를 설명할지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선 전 개헌론’에 대해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는 비판으로 일관했던 문 전 대표가 서둘러 자신의 개헌론을 내놓으려 하는 것은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 외부와 비문진영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닻 올린 개헌특위…시기·권력구조 놓고 갑론을박

## 30년만에 첫 회의…여야 이견

## 국민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논의

## 19일 1차 공청회 개최키로

“파이팅” 외치는 보수신당 개혁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뿐 아니라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권력구조는 최순실 게이트로 현 대통령제 적폐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남에 따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은 이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대통령 단임제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개헌의 범위는 특위 내에서 벌써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다 해결해야겠다고 하면 결론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현안인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새로운 헌법하에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미래, 통일문제, 사회적 경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이번 개헌이 일회용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착되지 않고, 30년간의 성찰과 반성 및 성과와 파악된 한계가 모두 반영되고 극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위는 이런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주승용 “潘 개혁보수라면 安과 경선”

## “플랫폼 정당돼 대선 단일후보로 정권교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5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체성 검증을 통해 개혁적 보수로 판명이 날 경우 영입해 안철수 전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반 전 총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국민의당으로 와서 경선을 치르면 지지율이 올라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현재 제3지대에서 개혁보수신당을 제외하고 정당은 국민의당 밖에 없는데 다른 대선후보들과의 경선을 위해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 주면 될 것“이라며 “당원을 제외하고 100% 국민경선으로 하면 국민의당에 못 들어올 것도 없다. 당명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내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호남 중심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호남 자민련’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민주당 내 비문 의원들과) 요즘도 삼삼오오 만나서 식사도 하고…최근 개헌저지보고서가 친문 쪽에서 나오면서 분노하는 상황을 포함해 당만 다르지 저희들과 생각이 똑같다”며 “탈당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숫자는 30~4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플랫폼 정당’이 돼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단일후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국민의당의 꿈이자 목표”라며 “분열되지 않고 치열한 국민적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낸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광주출신 최성 고양시장 19대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이 5일 “국정 농단, 북핵 위기, 안보 위기, 제2의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경제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시장은 이날 “박근혜 탄핵국면에 나타난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이 매우 엄정한데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당리당략적 정계개편과 정략적 개헌 논란만 일삼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혁신과 대통합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의 최 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국장,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대표단, 2001~2002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국장, 제17대 국회의원(고양 덕양을)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타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010-7384-7800

상가 매매 전문

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장)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융 5억) 보 1억 월 700만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 매가 22억

④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
45평 보 1억 월 60만 ▶ 매가 1억4천만 (융5천)

⑤ 상무지구 오피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융 2천4백만)
▶ 매매 6천9백만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월세 45만 (융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융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법률 경매 ㈜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매월동 (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3평
현 장례식장 운영
서광주역 1분
▶감정가 110억 → 최저가 110억

▣ 나주 송월동 ( 복합 상가건물 )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

▣ 북구 중흥동 ( 숙박시설 )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수기동 ( 2층 상가건물 )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십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첨단지구 식당임대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

★ 보 5천
월 300만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

* 평수 – 15평

◈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

★ 보 2천
월 6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평택 투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SAMSUNG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브레인시티/평택항 개항/미군부대 이전

☆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

◐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순수익 5억!!)

※1필지 200평 →
1억투자시 가능

☏062-511-7800
010-6832-9700